

## 한·몽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G.Munkhnasan (한국의국어대학교)

1. 몽골 경제 현황
2. 한·몽간 교역
3.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4. 몽골의 중장기 발전 계획
5. 한·몽 경제 협력 방안

### 1. 몽골 경제 현황

- 몽골 경제성장률이 2021년 회복 추세를 보이며 1.4%를 기록하였으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몽골은행 등의 예측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표1 참고).
  - △ 2021년 전망 몽골은행 6.1%, 아시아개발은행 4.8%, 세계은행 5% 이상
  -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6%를 기록하였으나 회복 추세
  - △ 코로나-19와 세계 시장 물가 상승, 국경 봉쇄, 운송 적체 등으로 국내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음
- 몽골의 GDP는 2017-2019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0년 전년 대비 6.2% 감소
  - △ 1인당 GDP는 4,599 달러로 전년대비 471달러 증가하였음
- 물가상승률은 2021년 13.4%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상태
  - △ 2020년 물가상승률은 2.3% 기록
  - △ 휘발유 가격 인상, 수입품 운송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 외환보유고는 202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전년 대비 3.7% 감소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3배로 크게 감소
- 2021년 교역은 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 수출 92억 달러, 수입 68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 2022년 연료 가격 48% 증가, 환율 3.5% 증가,
- 2019-2021년에 석탄 수출이 3,600톤→2,900만→1,600만 톤 감소<sup>1)</sup>

표 1. 몽골의 주요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5.6	7.7	5.6	-4.6	1.4
GDP(십억 달러)	11476.8	13177.1	14204.2	13311.8	43.0 조 투그릭
1인당 GDP(달러)	3705	4171	4450	4128	4599
물가상승률(%)	6.4	8.1	5.2	2.3	13.4
실업률(%)	8.8	7.8	10.0	7.0	-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3008.1	3549.1	4348.6	4534.2	4366.1
외국인직접투자(백만 달러)**	2086	2729	3131	2560	772
교역규모(백만 달러)	10537.9	12886.6	13747.1	12875.2	16095.8
- 수출액(백만 달러)	6200.6	7011.8	7619.6	7576.3	9247.1
- 수입액(백만 달러)	4337.3	5874.8	6127.5	5298.9	6848.6
- 무역수지(백만 달러)	1863.3	1137.0	1492.1	2277.4	2398.5

1) 몽골 정부, 신 부흥 정책. 2022.

출처: '국립통계청, 몽골 통계 연보 2020'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몽골은행, 외환보유고. <https://www.mongolbank.mn/dbgrossreserves.aspx>  
 \*\*몽골은행, 통계. <https://stat.mongolbank.mn/?r=1117>  
 \*\*\* 국립통계청, 통계정보 통합 베이스 <https://1212.mn>

## 2.한·몽간 교역

### ■ 2021년 한·몽 교역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그림1 참고)

△ 2021년 한국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양국교역량 증가, 최대 규모인 5.3억 달러에 달함

△ 2021년 기준 한국 수출은 3.1억 달러, 수입은 2.2 달러

△ 몽골의 총 교역에 한-몽 교역의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3.2% 증가

△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2021년 기준 전년대비 29.1%(7,000만 달러) 증가, 몽골 총 수입의 4.5%를 차지

△ 한국의 대몽골 수입은 2021년 기준 2억 달러로 증가. 몽골 총 수출의 2.2%를 차지

### ■ 한·몽 교역 추이(그림1 참고).

△ 2000-2010년 사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 2011-2013년 몽골경제 호황기에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에 5.2억 달러에 달함

△ 2014년 이후 지속 감소.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몽골 경제 하락

△ 2018-2019년 회복 추세를 보이며 2.9억 달러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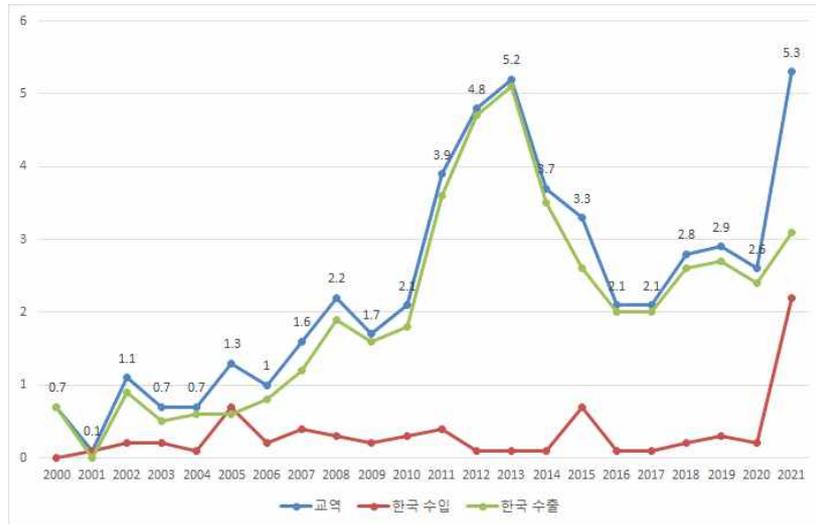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

△ 2021년을 제외하면 양국 총교역량은 몽골수입-한국수출량에 따라 변화(표2 참고).

△ 몽골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적자 상태

그림 1. 한·몽 교역 추이, 2000-2021년

(단위: 억 달러)



출처: 국립통계청, 통계정보 통합 베이스 <https://1212.mn>  
 몽골통관청 <https://gaali.mn/statistic/detail/03>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2. 한·몽 교역 추이, 2000-2021년

(단위: 억 달러)

	한-몽교역		몽골수출-한국수입		몽골수입-한국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0*	0.7	6.3	0.0	0.4	0.7	11.4
2001*	0.1	0.9	0.1	1.9	0.0	0.0
2002*	1.1	9.1	0.2	3.8	0.9	13.0
2003*	0.7	4.9	0.2	3.2	0.5	6.2
2004*	0.7	3.6	0.1	1.0	0.6	5.9
2005	1.3	5.7	0.7	6.1	0.6	5.4
2006	1.0	3.5	0.2	1.4	0.8	5.7
2007	1.6	4.0	0.4	2.1	1.2	5.8
2008	2.2	3.9	0.3	1.2	1.9	6.0
2009	1.7	4.2	0.2	0.8	1.6	7.3
2010	2.1	3.5	0.3	1.0	1.8	5.7
2011	3.9	3.5	0.4	0.8	3.6	5.4
2012	4.8	4.3	0.1	0.3	4.7	6.9
2013	5.2	4.9	0.1	0.3	5.1	8.0
2014	3.7	3.3	0.1	0.2	3.5	6.7
2015	3.3	3.8	0.7	1.4	2.6	6.8
2016	2.1	2.5	0.1	0.2	2.0	5.9
2017	2.1	2.0	0.1	0.2	2.0	4.6
2018	2.8	2.2	0.2	0.3	2.6	4.5
2019	2.9	2.1	0.3	0.4	2.7	4.4
2020	2.6	2.0	0.2	0.3	2.4	4.5
2021**	5.3	3.2	2.2	2.4	3.1	4.5

출처: 국립통계청, 통계정보 통합 베이스 <https://1212.mn>

\* 국립통계청, 통계연보 2006.

\*\* 몽골통관청 <https://gaali.mn/statistic/detail/03>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2021년에는 한국 수입품에 변화가 나타났음

△ 2020년까지는 한·몽 교역에 있어 수출입품의 큰 변화가 거의 없었음

△ 2021년에는 한국 수입에 큰 변화가 나타남. 광물 제품이 94.1% 차지, 그중 미가공 또는 반가공 금 68%, 석탄이 22.4% 차지

△ 한국의 수출품의 경우 식품, 의료 기기가 증가, 기계 장비와 여러 종류의 차가 주요 수출품

△ 2022년부터 한국은 유차 기름을 몽골에서 수입

- 2022.4.26. 800톤 계약

표3. 한국의 수입 제품(2021년)

코드	제품	단위	수량	금액 (천 달러)	비중
7108	미가공 또는 반가공 금	톤	2.7	152,371.0	68.2
2701	석탄	톤	191213.6	50,022.7	22.4
2613	몰리브덴 광석 및 정광	kg	690248.0	7,845.8	3.5
z	기타			4,114.9	1.8
6106	니트 스웨터(여)	개	50683.0	2,996.4	1.3
5105	빗질된 동물 털	kg	16800.0	1,834.4	0.8

6117	니트 의류 및 액세서리	u	71839.0	1,473.0	0.7
0507	뿔, 발굽, 발, 발톱	kg	70000.0	1,331.6	0.6
6110	니트 겹옷	개	31424.0	1,313.5	0.6
	총			223,303.2	

출처: 몽골통관청. 2022.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4. 한국의 수출 제품(2021년)

코드	제품	금액 (천 달러)	비중
	기타	60,101.5	19.5
1212-2203	식품, 주스, 맥주	40,827.7	13.2
8702-8705	승용차, 화물차, 운송 차량	34,819.2	11.3
7308-9022	기계, 장비	34,652.9	11.2
2402	담배	27,117.3	8.8
2710	석유 제품	24,539.3	7.9
8429	대형차	20,849.0	6.8
3609-9619	산업제품	19,279.3	6.2
2711-3402	화학제품	16,517.0	5.3
3002	혈액, 백신	14,310.6	4.6
3004	약품	9,000.0	2.9
3304-3305	화장품	6,732.9	2.2
	총	308,746.6	100

출처: 몽골통관청. 2022.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송비 급속히 증가

- △ 항공화물 - 인천국제공항에서 울란바타르 국제공항까지 3시간 직항노선.
- 세관 등록 과정은 평균적으로 2일 소요 3000원
- 한국과 몽골 간 화물 항공편은 오직 수요일에, 몽골항공(МИАТ)만 담당
- 육상화물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항공화물의 규모 크게 증가, 2020년 12월 기준 150-200개에서 2022년 3월 700-950개로 5배 증가
- 한국 EMS는 한국 우체국에서 담당하며 비교적 저렴함(7,000-8,000원)
- 최근 미국의 한 물류회사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몽골항공의 화물항공 적재권을 구입하여 의약품만 운송되는 문제도 나타났음
- 2022년 5월 8일 기준 항공화물 요금은 9,800-10,600원이며 7-10일 소요

표5. 한·몽 간 항공화물 기간과 가격(단위: 일, 원)

	기간(일)	가격(원)
2020.12 코로나-19 시작 시	2	3,000
2021.8 월	4-5	6,500
2021.10	5-7	7,000

2021년 말부터	7-14	9,500
-----------	------	-------

출처: 몽골 VIP 회사 항공화물 담당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2022.03.24

△**육상화물** - 현재 3-4개월 소요

- 육상화물은 인천항에서 선박으로 중국의 천진(톈진)항으로 운송, 그 이후에 올란바타르까지 철도로 운반
- 현재 중국에 몽골로 수송할 약 1만 개의 컨테이너가 정체되어 있음
- 육상화물이 적재되는 컨테이너 당 가격은 3,500\$에서 8,000\$로 증가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로 에렌허트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육상화물운임이 2배 가량 증가
- 2020년 12월 수송된 육상화물은 214개 - 2022년 3월에는 40-50개로 대폭 감소
- 2022년 5월 8일 기준 항공화물 요금은 4,500-5500원, 90-120일 소요

표6. 한·몽 간 육상화물 기간과 가격 (단위: 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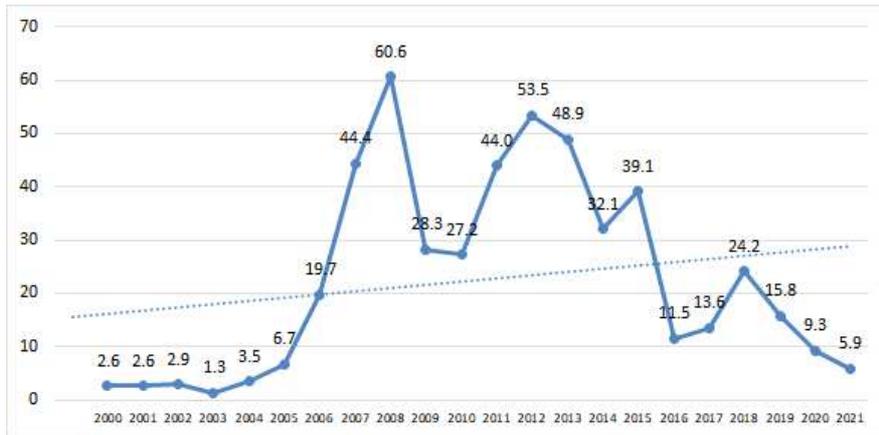
	기간(일)	가격(원)
2020.12 코로나-19 시작 시	7-14	1,000
2021년 말부터	90-120	4,500

출처: 몽골 VIP 회사 항공화물 담당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2022.03.24

3.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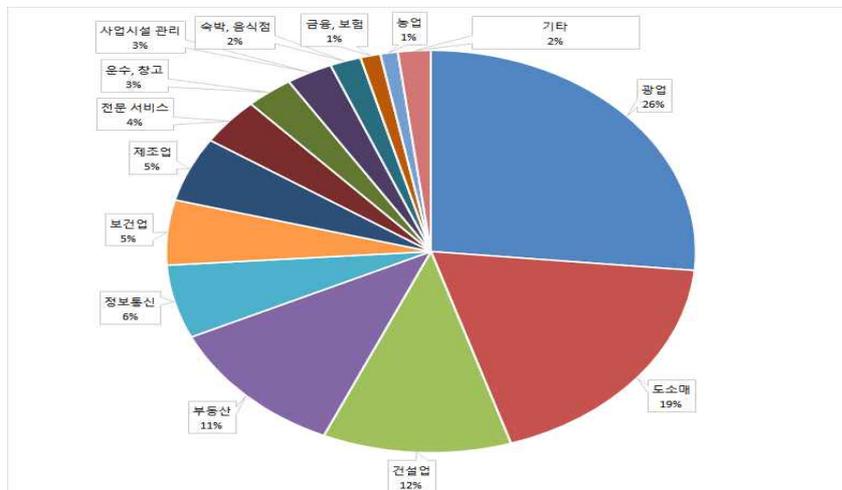
-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그림1 참고)
  - △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1~2021년간 총 5억 1,014만 달러(11위)
  - △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7, 2008, 2011, 2012, 2013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몽골의 경제 호황기이었음
  - △ 2015년 이후로 감소하고, 2017, 2018년에는 다시 증가했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감소
  - △ 한국의 680개 법인이 몽골에 진출
  - △ 주요투자분야가 68% 차지: 광업 26.5%, 도소매 18.6%, 건설 11.5%, 부동산 11.4%
  - △ 기타 투자 분야: 정보통신업 5.9%, 보건 및 제조업 각 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 운수 및 창고업 2.9% 차지
  - △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 직접투자를 형태로 살펴보면 단독 투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2021년 기준 단독투자 68.2%, 합작 투자 28.4%, 공동투자 9.3% 이다.

그림2.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 직접투자액 추이, 2000~2021년(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3. 한국의 대몽골 분야별 외국인투자 비중, 1994~2021년, (단위: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4. 한국의 대몽골 형태별 외국인투자, 2000~2021년, (단위: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최근 몽골의 기업환경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침<sup>2)</sup>.
  - △ 세계은행의 'Ease of Doing Business'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몽골의 순위는 62→74→81로 하락
  - △ 창업(59→87→100), 전기공급(139→148→152), 무역(110→117→143), 기업퇴출(93→152→150) 부문의 순위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침
  - △ 기업환경이 악화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제한 조치들, 국가 주요 사업 연장, 국제 무역 환경 악화(특히 수입 재료 감소, 운송 문제), 외국인직접 투자유치 감소 등

#### 4. 몽골의 중장기 발전 정책

- 몽골의 장기 개발 정책 '몽골 비전 2050'(2020년 5월 13일 승인)
  - △ 몽골의 발전을 2020년부터 각 10년마다 3단계로 계획
  - △ '몽골 비전 2050'은 9개 분야, 145.1조 투그릭 규모의 187개 사업을 계획

표 7. '몽골 비전 2050'의 사업 계획

대분야	소분야	투입 예산 (십억 투그릭)	사업 수
국가적 가치	세계 몽골, 유목민 몽골, 몽골 문자, 역사 문화	708.3	11
인적개발	교육, 건강, 가족, 과학, 생활환경, 노동시장	16,356.8	23
생활 질과 중산층	사회복지, 보험, 스포츠센터	1,685.5	5
경제	광업, 중공업, 농업, 산업, 관광, 자유무역지대	54,501.5	33
좋은 거버넌스	스마트 제도, 디지털 몽골,	70.9	6
그린 개발	환경, 조림, 물 관리	13,659.1	17
안전한 사회	국경, 안정화, 법집행, 정보 보안,	2,121.2	22
지역개발	도로, 철도, 에너지 시설사업	48,166.8	56
올란바타르와 위성도시	에너지, 운송, 물류	7,832.5	14
<b>총</b>		145,102.6	187

출처: 몽골 정부 비전 2050, p 441-475

- 몽골의 장기 발전 정책 '몽골 비전 2050'의 주요 개발 사업
  - △ 광업, 중공업, 관광업, 도 개발, 도로-에너지-철도-물류 관련 대규모 사업

2) 자료: World Bank Group(2018),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p. 104, World Bank Group(2019), "Doing Business 2019: Training for reform," p. 190, World Bank Group(2020), "Doing Business 2020: Economy Profile of Mongolia," p. 4.

표 8. 몽골 비전 2050'의 개발 주요 사업 개요

분야	사업 개요	투자 금액 (백만 투그릭)
광업(9)	Tsagaan ovoo, Gatsuurt, Dunlaan uul, Zuuvc ovoo, Ovoot, Oyutolgoi, Tavantolgoi, Kharmagtai, Tsagaan suvraga 등의 광산 개발 (금, 우라늄, 석탄, 구리, 몰리브덴, 합금 금속)	8,314,666.3
중공업(7)	광물 가공 공장(Baganuur 산업기술단지, 철, 구리, 석탄, 석유, 점결탄 가공 등)	20,861.6
농업(2)	목축 위생, 식품 안정, 자유무역	105,383.0
산업(8)	사업 기술 단지(Bagakhangai, Nalaikh, Emeelt 등), 시멘트 공장, 유리 공장, 경공업	1,630.5
관광업(6)	관광단지, 휴게소, 교육 센터, 칭기스칸 관광 단지, 만들기, Uvurkhangai 도 91km 도로 건설	373.0
도로(20)	광산업 관련 및 지방 도시와 도로 연결	7,496.3
에너지 (16)	전력 발전소 (Baganuur, Tavantolgoi, Shivee ovoo, Choir 등) 건설	26,645.6
철도(6)	Nariin sukhait-Shivee khuren, Bogdkhan, Erdenet-Ovoot, Khuut-Bichigt 노선 등	13,860.5
도 개발(14)	도로, 물류, 항공, 에너지	1,642,295.0
울란바타르와 원성 도시(14)	도시 건설, 에너지-7, 교통, 물류	783,250.0

출처: 몽골 정부 비전 2050, p 441-475

\* 한국의 10개 아이막 중앙난방 시설 건설 - 대출 1억 4870만 달러

\* 무지개-1,2 아파트 단지 건설

■ 몽골 중기 개발 '부흥 정책'

- △ '몽골 비전 2050'의 1차 10년 계획 실행을 위한 정책 2021년 12월 30일 승인
- △ 팬데믹 이후 경제를 확장하고 재건할 목적
- △ 6개 분야에서 실행
  - 국경 검문소, 에너지, 산업, 도시와 지방, 그린개발, 정부 생산성
- △ 초기에는 57조 투그릭, 전체 구현을 위해서는 총 100-120조 투그릭 필요

■ 주요 기대 효과<sup>3)</sup>

- △ 2025년까지 28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정
- △ 울란바토르로의 이주 감소, 지방에서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 창출
- △ 에너지 용량 2.5배 증가
- △ 국경 통과(항구) 용량 3배, 수출 2배 증대
- △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 규모 2배 증가

■ 국경검문소(항구) 개선

- △ Gashuun Sukhait 철도노선, 내년에 개통 예정
- △ 15개 국경 검문소를 도로로 연결
- △ Altanbulag-Zamiin-Uud 항구를 연결하는 987km 고속도로 건설

3) <https://news.mn/r/2512271/>

■ 에너지 분야 개선

- △ 동북아 슈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두 이웃을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 목표
- △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활성화
- △ 화력발전소 III 증설, Tavan Tolgoi, Baganuur, Choibalsan 화력발전소, Amgalan 발전소 준공

■ 산업 부흥

- △ 부가가치 광업 및 농업가공공장 단계적 구축
- △ Erdenet 구리 정광 처리 공장, Tavan Tolgoi 석탄 농축기, Darkhan-Selenge 지역에 철강 공장 건설 및 가동 예정
- △ 정유공장을 가동 시작

■ 도시와 지방의 발전

- △ 수도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4,200억 투그릭 할당
- △ 울란바토르 내 대중교통 전면 개선
- △ 3개 노선, 41km 대중교통 착공, 2024년 첫 노선 완공 예정
- △ Bogd Khan Uul 주변에 136km의 새로운 철도 건설

■ 그린개발 부흥

- △ Khukh mori 국가 프로그램 시작: 목초지 관개, 고비 지역에 물 공급, 중수 재활용, 호수 및 연못 만들기, 마른 강-개울-샘 복구
- △ 울란바토르, 아이막 및 지역에 새로운 친환경 기술 재활용 공장 설립

■ 정부 생산성 부흥

- △ 전자국가 정책으로 실행하고 2024년까지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라이선스 및 기술 요구 사항의 수를 최소 50% 줄이기
- △ 일부 정부 기능을 민간 부문 및 전문 협회로 이전
- △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

### 5. 한-몽 경제협력 방안

■ 현재 한-몽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 정책 방향을 보다 효과적인 산업협력, 에너지, 인프라, 중소기업 분야 등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지난 30년간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고, 가능한 경제협력 수준에 못 미치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한·몽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 △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2021)에 따르면
  -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
  - ‘울란바타르와 위성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경험을 공유. 이와 관련하여, 몽골 측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와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
  - 유통 인력 교육, 유통제도 개선 및 새로운 유통 기술 도입 등에 대한 협력
  - 동식물 제품 관련 정보를 교환, 전문가 양성을 포함한 농업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
  - 한·몽 중소기업 협력 MOU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

△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자료에 따르면<sup>4)</sup>

- 관세 철폐 외에도 산업 협력을 위한 영구적인 메커니즘 구축
- 주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합작 투자 설립 등의 기대효과
- 몽골의 광업 및 농업용 원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할 가능성, 특히 몽골산 구리 정광, 점결탄, 철광석과 같은 광물 원자재 및 반제품, 유기농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예정
- 한국 기업의 대몽골 투자 경향을 광업, 제조업,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

■ 최근 경제협력 유망 분야는 관광, 건축, 인프라<sup>5)</sup>

△ 최근 몽골의 관광 산업 활성화 노력: 한국인 비자 면제

- 항공요금을 낮춰야 함: 국제 기준 1시간-100\$

△ 한국 건설업을 몽골 시장에 투자할 기회 제공 정책

-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15-20년 임대
- 대출 보증: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6% 대출 제공, 15-20년

△ 인프라 투자 지원

△ 항공 운송 자유화, 항공 화물을 늘리기, 지질학 및 광산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기에 대한 이야기<sup>6)</sup>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후 몽골 대표와 만남
- 대한민국 대통령을 편리한 시간에 몽골을 방문-U.Khurelsukh 대통령의 초청장을 전달

■ 몽골의 중장기 발전 정책, 양국 경제협력 정책에 따른 한·몽 경제협력 중장기 방향 제언

△ 1. 몽골개발 사업 참여: 도로사업, 철도사업, 중공업, 산업기술 단지, 에너지

△ 2. 한국의 선진기술 전달 사업: 산업기술 단지, 물류, 농업, 도시개발

△ 3. 광업 자원을 이용한 가공 합작 가공 공장

■ 한·몽 간 운송개선 필요

△ 중국을 통한 육상 운송 이외 러시아를 통한 운송을 활용해야 함

- 몽골 측의 적극 노력 필요함(중국 1100km, 러시아 4700 km -극동개발전략)
- 2018년 6월 18일 몽골정부와 러시아정부의 '철도환적 화물 운송에 대한 협정'을 체결<sup>7)</sup>
- 몽골은 러시아 철도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바다로 접근, 제3국으로 수출
- 몽골자원을 러시아를 통해 수출할 경우 25년 동안 운송 혜택 부여
- 몽골석탄 러시아 철도 이용 시 철도운임 66.4% 인하, 컨테이너 운송료 52% 인하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적극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나, 향후 활용

필요

△ 항공화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항공화물 운송가격 인하 정책 필요

- 몽골의 국제 육상 운송이 어려운 상황임

4) 몽골 외교부(2022).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https://mfa.gov.mn/монгол-бису-эдийн-засгийн-түншлэлийн>

5) 주한몽골대사관의 경제상무참사관 오르길도르즈와의 인터뷰. 2022.05.18

6) <http://itoim.mn/article/PBOKt/33075>

7) <https://mrtd.gov.mn/i/1501>

- 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철도 운송 어려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한국에 있는 몽골 회사들은 모두 몽골항공만을 통해 항공화물 운송(허가 문제)
- 한국 우체국 EMS의 경우대한항공과 몽골항공 이용
- 몽골로 가는 항공운송 자유화에 대한 조치 필요함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 한국의 몽골 내 개발 사업 참석을 지원할 정책 필수 - 연구 필요

현재 주요 경쟁자는 중국: 몽골의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 몽·중·러 경제 회랑, 일대일로 등 정책을 통해 몽골에 적극 접근
- △ 에르데네부렌 수력발전소 1,154억 달러 대출, 올란바토르 중앙 폐수 처리 시설 2억 4,952만 달러 대출, Nogoos nuur 인근 1,008세대 아파트 3억 4,740만 위안 원조, Zamyn-Uud 및 Gashuun Sukhait 국경검문소 개선 및 통관 장비 9억 4,900만 위안 원조 등 사업이 현재 중국의 지원으로 실행 중<sup>8)</sup>
- △ 2019년 기준 몽골 내 중국인 13만 명 거주, 8,522명 고용허가 발급<sup>9)</sup>
- △ 몽골시장을 소규모로 보지 않고 모든 분야에 적극진출-외국인직접투자 2위
- △ 몽골인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해 온 경험이 있음
- △ 지리적 위치의 장점, 한국보다 경쟁력 있는 운송비와 인건비, 재료 공급 등

■ 몽골정부와 민간 회사들과 협력 방안을 추구해야 함

- △ 몽골정보와 외교적 적극 접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실행 활성화
- △ 민간 기업들과 적극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국가사업 입찰 참석 등 방안
- △ 몽골의 개발 사업에 한국 기술, 몽골 노동자 우선하되, 중국이나 북한 노동자를 활용할 가능성 있음
- △ 몽골 민간 기업들과 협력 방안 연구 (합작 회사, 협력 계약 등)

■ 한·몽 EPA 체결이 중요

- △ 수출입품 관세 면제를 적용하면 교역 증가 가능성 높음
- △ 서비스무역 시장개방을 인한 서비스무역 증대-한국의 은행이 몽골진출 가능성 있음. 이것은 양국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
- △ 한국의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 몽골시장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개선: 특히 산업기술단지, 가공업 등

- △ 현재까지 보완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구 및 조사 필요
- 몽골시장 특징에 대한 이해부족: 높은 소비성격, 통계적 수익과 실질 수익의 차이 (화장품 Renecell의 한국 지사 몽골 진출 네트워크 사업 사례)
- 몽골 측의 Master Franchising 선호 (CU, Emart, Coffee bean 등 사례)
- 한국 사업가들의 몽골의 인구 한계, 계절성, 물 관리, 인프라, 운송비용이 부담
- 한국 공장의 형식과 몽골 공장의 형식 차이(섬유 공장, 단력 공장 등 사례)

■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 중기 계획을 수립

- △ 경제협력 중기 계획은 3-5년 단위로 수립하고, 담당 실무 기관을 선정해야 함
- △ 몽골의 광업 가공, 산업 분야에 한국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부담
- 몽골 Erdnet 구리 공장 같은 양국 협력 큰 공장 하나를 설립하면 큰 성과
- △ 양국 정부 자문위원회 활동과 역할 중요

8) 몽골 재정부. 2022 국가 예산 계획

9) <https://montsame.mn/mn/read/204155>

## 참고 문헌

몽골국립통계청2020. 몽골 통계 연보 2020

몽골 정부. 2022. 신 부흥 정책 2022.

몽골 정부. 2021. 비전 2050: 몽골의 장기 개발 정책, p 441-475

몽골 재정부. 2022 국가 예산 계획

몽골통관청. 2022. 수출입품 내부 자료

World Bank Group. 2018.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p. 104

World Bank Group. 2019. Doing Business 2019: Training for reform, p. 190

World Bank Group. 2020, Doing Business 2020: Economy Profile of Mongolia, p. 4.

### 인터넷 자료

몽골국립통계청. 통계정보 통합 베이스 <https://1212.mn>(검색일: 2022.04.22.)

몽골 정부 도로운송개발부 장관 인터뷰. 2018. <https://mrtd.gov.mn/i/1501>(검색일: 2022.05.04.)

몽골은행. 외환보유고. <https://www.mongolbank.mn/dbgrossreserves.aspx>(검색일: 2022.04.22.)

몽골은행. 통계. <https://stat.mongolbank.mn/?r=1117>(검색일: 2022.04.22~05.09)

몽골 외교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https://mfa.gov.mn/МОНГОЛ-БНСУ-ЭДИЙН-ЗАСГИЙН-ТҮНШЛЭЛИЙН> (검색일: 2022.05.04)

몽골 통관청. 통관전자 서비스. <https://gaali.mn/statistic/detail/03> (검색일: 2022.05.0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통계 자료.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22.05.02)

6개 분야에서 '신부흥정책' 시행. <https://news.mn/r/2512271/>.(검색일: 2022.05.04.)

몽골에는 28,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https://montsame.mn/mn/read/204155>(검색일: 2022.05.04.)

윤석열: 몽골 국민의 대한민국 무사증 여행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http://itoim.mn/article/PBOKt/33075>(검색일: 2022.05.12.)

몽골, 처음으로 한국에 식물성 기름 수출 시작. <https://eguur.mn/319472/>(검색일: 2022.05.12.)

### 인터뷰

주한몽골대사관의 경제상무참사관 오르길도르즈와의 인터뷰. 2022.05.18

몽골 VIP 회사. 항공화물 담당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서울. 2022.03.24